

17세기 후반의 彫刻僧 端應의 불상 연구

이민형*

I. 머리말
II. 端應 불상의 특징과 영향
III. 端應의 활동배경과 새로운 경향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후기 불교조각은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 등의 전쟁으로 파괴된 사찰을 再建하면서 조성되었다. 불교계에서는 僧軍이 전쟁에 참여하여 국난 극복에 기여하였는데, 전쟁을 통해 조직화된 승군은 대규모 再建佛事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¹ 이 때 제작된 불상들은 현재 전국 각지의 사찰에 남아있어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彫刻僧 端應의 대표적인 작품은 1684년에 제작된 경상북도 예천 龍門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과 木刻阿彌陀如來設法像이다.² 용문사 목각아미타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졸업

¹ 전쟁으로 인해 소실된 사찰의 중창과 중수는 浮休善修와 그 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불교사원의 복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浮休善修(1543~1625)는 淸虛休靜(1520~1604)과 함께 양대 門派를 형성하였던 승려로 제자인 碧巖覺性(1575~1660)에 의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찰의 재건과 佛事가 진행되었다. 17세기 사찰의 재건에 관해서는 이강근, 「17세기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참고.

²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선학들에 의해 '木刻幀', '木刻佛幀', '後佛彫刻' 등으로 불리었다. 아미타여래가 극락 세계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 아미타여래설법상으로 불리며, 바탕천에 그림을 그린 불화와 달리 나무판에 존상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문화재청의 지정 명칭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여래설법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도상 해석이 중심이었다.³ 그러나 근래에 불상을 조사하면서 화기가 추가로 발견되어 단응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심주완은 2006년 발표된 「龍門寺 木佛像의 작품과 그 영향」에서 용문사 불상의 작가를 밝히고 불상의 특징과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⁴ 기존의 조선 후기 불교 조각 연구의 흐름은 전라도·충청남도·경기도 등지에서 불상을 제작했던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양식에 집중되어 있었다.⁵ 그런데 이 논문을 통해서 단응이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임이 학계에 밝혀지게 되어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논문에서는 기존에 19세기로 추정되었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제작 시기를 새롭게 편년하여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으로 재정리하였다. 그러나 조각승의 생애와 사승관계 등 보완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주완의 연구 이후 필자는 자료의 수집과 조사를 통해 단응의 계보를 밝혀낼 수 있었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의 불상 조사에서 단응이 제작한 불상이 추가로 발견

3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관한 연구는 문갑주, 「大乘寺 木刻幀」, 『考古美術』7(한국미술사학회, 1966), pp. 4-13; 동저, 「木刻幀의 一例」, 『考古美術』9(한국미술사학회, 1968), pp. 63-66; 동저, 「尙州 南長寺藏 木刻佛影幀에 관하여」, 『歷史教育』11·12(1969), pp. 325-334; 홍운식, 「朝鮮後期 木刻幀畫에 對하여」, 『文化財』(문화재관리국, 1981), pp. 169-182; 이종문, 「朝鮮後期 木刻幀 研究」, 『美術史學研究』210(韓國美術史學會, 1996. 6), pp. 39-96 참고.

4 심주완, 「龍門寺 木佛像의 작품과 그 영향」, 『講座美術史』26-I(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6), pp. 139-163.

5 조선 후기 불상이 개별적으로 조사되어 發願文과 事蹟記 등의 기록을 토대로 조각승의 계보 또는 유파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玄眞, 淸憲, 無染과 중반기의 雲惠, 勝一, 熙藏, 惠熙, 그리고 후반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色難에 관한 논문들이 나왔다. 이 외에도 18세기 조각승 進悅, 戒初 등에 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이 때 제작된 불상은 대부분 전라도·충청도·경기도 지역 사찰에 봉안되었다. 조각승 현진에 관해서는 송은석, 「17세기 조각승 현진과 그 유파의 조성」, 『미술자료』70·71(2004), pp. 69-99; 문명대, 「17세기 전반의 조각승 현진파의 성립과 지장암 목 비로자나불좌상」, 『강좌미술사』29(2007), pp. 53-80; 무염에 관한 논문은 「무염파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 목아미타삼존불상」, 『강좌미술사』20(2003), pp. 63-81; 동저, 「조각승 무염, 도우파 불상 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26(2006), pp. 23-51; 청현에 관한 논문은 이희정,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청현」, 『불교미술사학』3(2005), pp. 83-112; 승일에 관한 논문은 이분희, 「조각승 승일파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26(2004), pp. 83-112; 색난에 관한 논문은 김리나,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33(1982), pp. 59-65; 최선일, 「조선 후기 전라도 조각승 색난과 그 계보」, 『미술사학연구』(2000), pp. 35-62; 동저,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조선 후기 목조삼존불감」, 『미술사학연구』16(2002), pp. 137-155; 오진희, 「조각승 색난파와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강좌미술사』26(2006), pp. 113-138; 혜희에 관한 논문은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혜희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2(사회평론, 2006), pp. 152-175; 그 외 윤혜, 진열, 계초에 관한 논문으로 최선일,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윤혜」, 『불교미술사학』2(2004), pp. 199-219; 동저,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조각승 진열」, 『미술사학연구』144(2004), pp. 171-197; 동저,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조각승-계초비구를 중심으로」, 『동약미술사학』4(2003), pp. 73-87.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불상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게 되었다. 최선일,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6);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

되어 그의 출신지와 후원자 역할을 한 승려들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⁶

본 글에서는 먼저 단응의 기년명 작품을 중심으로 발원문을 분석하고 불상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단응의 계보를 밝히고, 불상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단응과 그 계보의 조각승을 후원한 神鏡과 宗現의 역할과 단응 계열에서 유행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새로운 경향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Ⅱ. 端應 불상의 특징과 영향

1. 端應 제작의 불상

조각승 단응이 보조 화원으로 불상 제작에 참여하거나 수화원이 되어 만든 기년명 불상은 모두 5건이다. 먼저 발원문, 화기 등의 기록을 통해 불상 제작을 둘러싼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상의 특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권속상

단응이 불상 제작에 참여한 가장 이른 기록은 1656년 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의 발원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발원문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권속상 발원문〉

“順治13年(1656) 1월에 良工 50여 명을 청하여 대영산교주 석가여래와 좌우보처 제화갈라와 자씨미륵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16나한, 오백성중, 용녀, 제석, 장군, 동자 등의 상을 만들었으니, 초가을에 이르렀다. ……불상을 제작한 畫員은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⁶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하여 출간된 『한국의 사찰문화재』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조선 후기 불교문화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논문을 쓰는데 참고가 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사찰문화재』강원도(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3); 『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남도·대전광역시(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북도(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광주광역시(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Ⅰ(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Ⅰ(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還,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이다.”

“대영산 16성종과 오백성문을 제작한 대시주는 道罔, 畫員은 端應, 性還, 三應, 法行, 大化 主는 忠印, 智照, 覺心이다.”⁷



도 1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나한상(사진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권속상은 順治13年인 1656년(효종 7)에 제작되었다. 불상의 제작을 이끈 수화원은 無染이며 화원으로 기록된 승려는 모두 30명이다. 이 중 단응은 11번째 화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발원문에서는 16나한상과 오백나한상을 만든 화원으로 기록되어 있다.⁸ 나한상의 발원문에는 단응의 이름이 맨 앞에 언급되어 있어 나한상의 일부를 주도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16나한상은 무염의 불상에서 보이는 돌출된 코가 나타나며 서로 유사한 양식을 띠고 있다(도 1).⁹ 따라서 송광사 나한상은 수화원 무염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단응은 무염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단응은 송광사 나한전 佛事に 참여한 후 30년 뒤에 예천 龍門寺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龍門寺 金堂 始創 腹莊記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畫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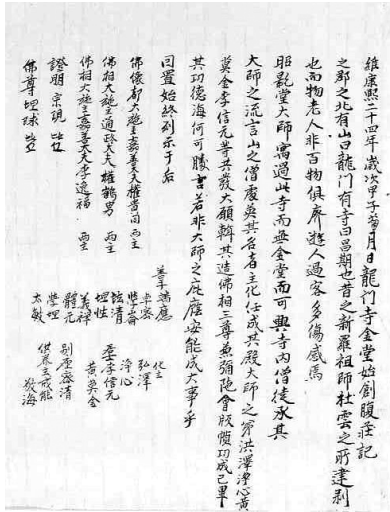
⁷ 발원문을 옮겨 적은 최초의 기록에서는 瑞應으로 읽고 있으나, 瑞應은 畫員秩에 언급되지 않은 화원으로 端應으로 읽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응의 法名은 발원문 앞부분에는 丹應으로, 뒷부분에서는 端應으로 기록되어 있다. 박도화, 『松廣寺 五百羅漢殿의 羅漢像』, 『講座美術史』13(1996, 6), pp. 44-45. “順治十三年丙申元月日敬請良工五十餘人始作 月日大靈山校主釋迦如來左右補處提花竭羅慈氏彌勒 十六大阿羅漢與五百聖衆龍女獻珠左右帝釋左右將軍諸位使者童子等像至孟秋 …… 畫員秩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丹應 天信 道均 海淨 三應 道心 行敏 印罔 法行 善文 冲學 議宗 心敏 性還 思忍 智修 覺林 冲行 玉玄 行珠……”,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 大施主 道罔 畫員 端應 性還 三應 法行 大化主 忠印 智照 覺心.”

⁸ 五百羅漢殿에서 발견된 發願文은 일반적인 형식을 띠는 발원문 1매와 大靈山十六聖衆五百聲聞成造同願文 5매가 따로 기록되어 총 6매가 발견되었다.

⁹ 조각승 무염에 관해서는 문명대, 앞의 논문(2003), pp. 63-81; 동저, 앞의 논문(2006), pp. 23-51; 최선일, 앞의 논문(2006, 6), pp. 66-76; 송은석 앞의 논문(2007, 2), pp. 142-159.

〈용문사 금당 시장 복장기〉

“康熙24년(1684) 歲次가 甲子에 해당하는 해 9월 일 용문사 金堂을 처음 창건한 복장기, ……昭影堂大師가 우연히 이 절을 지나다 金堂이 없어서 세우고자 했다. 절의 스님네가 대사의 뜻을 받들어서 이곳의 處英이라는 스님이 化主의 소임을 맡아 불전을 완성하였고, 대사의 사제인 洪澤, 淨心 스님, 黃莫金, 李信元 등이 큰 서원을 세우고 佛像 三尊과 彌陀會版幀을 만드는 일을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불상 大施主는 가선대부 權貴同 부부, 통정대부 權學南 부부, 가선대부 李逸福 부부이다. 證明은 宗現 비구이며, 佛尊은 球比 비구이다. 불상을 조성한 善手는 端應, 卓密, 學倫, 法清,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이며, 化主는 弘澤, 淨心, 居士 李信元, 黃莫金, 別座는 密清, 供養主는 戒能, 敬海이다.”¹⁰



도 2 용문사 금당 시장 복장기, 1684년, 종이, 110.5×73.3cm(용문사성보유물관, 『龍門寺』, p. 117)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화기〉

“康熙23年(1683)에 경상좌도 예천군 땅의 소백산 용문사에서 像 三尊과 後佛木幀大彌陀會를 조성하였다. 불상의 施主는 통정대부 權貴同 부부, 가선대부 李逸福, 權學南 부부, 朴重華 부부다. 山中大德秩은 瑩英, 致能, 太賢, 而瓊, 雪行, 尙歸, 法悅, 應嚴, 太能 비구이다. 寺中은 주지 敏球, 우두머리 승려 密雲, 三剛은 尙梅, 義坦, 幸卞, 義暹, 性總, 大現, 道海, 瑞琿, 學哲, 瑞全, 熙印 비구이다. 畫員秩은 端應, 卓密, 學倫, 法清,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비구이다. 緣化秩 證明은 宗現, 持殿은 坦球, 禪德은 穎眞 비구이다. 供養主는 戒能, 敬海, 仁白, 聖得이며, 別坐는 密清 비구이다. 化主秩은 山林道人 洪澤, 淨心, 黃莫金, 李生男이다. 良工助緣秩은 李白蓮 李戒一 善允比丘 朴戒澗이다.”¹¹

¹⁰ “維康熙二十四年歲次甲子菊月日龍門寺金堂始創腹莊記……昭影堂大師萬過此寺而無金堂而可典寺內僧徒承其大師之流言山之僧處英其名者主化任成其殿大師之弟洪澤淨心黃莫金李信元等共發大願轉其造佛像三尊兼彌陀會版幀功成已畢……佛像都大施主嘉善大夫權貴同兩主 佛相大施主通政大夫權學南兩主 佛相大施主嘉善大夫李逸福兩主 證明宗現比丘 佛尊坦球比丘 善手 端應 卓密 學倫 法清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化主 弘澤 淨心 居士 李信元 黃莫金 別座密清 供養主 戒能 敬海.” 『용문사』(용문사성보유물관, 2006), pp. 116-117.

¹¹ “康熙二十三年甲子季 穉日慶尙左道體泉郡 地小白山龍門寺等像 三尊後佛木幀大彌陀會後 佛像都大施主通政大夫權貴同兩主 佛像大施主嘉善大夫李一福 佛像大施主權鶴男兩主 佛像大施主朴重華兩主 山中大德秩瑩英 致能比丘 太賢比丘 而瓊比丘 雪行比丘 尙歸比丘 法悅比丘 應嚴比丘 太能比丘 寺中 時住持敏球比丘 時首僧密雲比丘 三剛尙梅比丘 義坦比丘 幸卞比丘 義暹比丘 性總比丘 大現比丘 道海比丘 瑞琿比丘 學哲比丘 瑞全比丘 熙印比丘 畫員秩 端應比丘 卓密比丘 學倫比丘 法清比丘 坦性比丘 義禪比丘 體元比丘 學坦比丘 太敏比丘 緣化秩 證明宗現比丘 持殿坦球比丘 禪德穎眞比丘 供養主戒能比丘 敬海比丘 仁白 聖得 別坐密清比丘 化主秩 山林道人 洪澤比丘 淨心比丘 黃莫金 李生男 良工助緣秩 李白蓮 李戒一 善允比丘 朴戒澗.”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 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 288.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康熙24年인 1684년(숙종 10)에 제작되었다. 端應은 수화원으로 등장하였으며 卓密, 學倫, 法淸 등 총 9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다. 네 번째로 기록된 조각승 법청은 1682년 용문사 시왕전 건립에 참여하였던 승려로 사찰의 중창과 함께 불상의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¹²

복장기에는 昭影堂大師가 金堂을 창건하고자 하였음이 기록되어 용문사의 佛事는 소영당대사가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이 교리에 맞게 조성되었는지 확인하는 證明은 宗現 비구가 맡았다. 化主인 洪澤은 1683년에 處英과 함께 金堂을 세우고 이듬해에 용문사 祝壽殿을 건립하였던 승려이다.¹³ 화기의 寺中에 관한 기록을 통해 당시의 용문사 주지는 敏球임을 알 수 있다. 義坦과 義暹은 1670년에 대장전 서까래와 기와를 수리하였던 승려로 용문사에 거주하면서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¹⁴ 寺中으로 기록된 승려인 性總은 1686년 용문사 주지에 임명된 인물이다.¹⁵

화기에 기록된 ‘後佛木幀’과 ‘版幀’은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복장



도 3 단웅,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84년, 예천 용문사(사진 필자)

¹² “……紀在辛酉 作萬歲樓……明年 作十王殿 斗寬法淸道海印瓊精律洞英之徒 通其力…….” 『龍門寺』(용문사성보유물관, 2006), p. 23.

¹³ 化主인 洪澤은 1703년에 문경 金龍寺 掛佛을 조성할 때에는 持殿으로 등장하여 용문사와 인접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淨心은 1745년 부석사 괘불을 중수할 때 證師로 등장한다. 山中大德秩로 등장하는 雪行은 1668년 고운사 봉황문을 지은 승려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주완, 앞의 논문, pp. 143-144.

¹⁴ 『龍門寺』(용문사성보유물관, 2006), p. 21.

¹⁵ “……淸心堂在十王殿之前 明月寮在寂默堂之右 此則住持性聰之丙寅所構也…….” 『龍門寺』(용문사성보유물관, 2006), p. 23.

기에는 ‘彌陀會版幀’으로 기록되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三尊後佛木幀大彌陀會’라는 기록을 통해 ‘阿彌陀佛會’를 형상화한 것이며, 三尊을 앞에 모시고 그 뒤에 봉안하였던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고 허리가 길쭉하다(도 3). 평면적인 사각형 얼굴과 매부리코는 근엄한 인상을 준다. 아미타불의 배에서 늘어지는 옷 주름은 W형으로 드리워져 있고, 다리 위를 덮은 대의 자락은 균일하게 좌우로 펼쳐져 있다. 좌협시는 보관에 정병을 얻은 연꽃으로 관음보살임을 나타내었고, 우협시는 보관에 정병을 조각하여 대세지보살임을 알 수 있다. 두 협시보살은 화려한 보관에 좌우로 날리는 관대가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연꽃 위에 정병과 경책이 크게 강조되어 장식적인 경향을 보인다. 관음보살은 僧脚崎 아래로 花紋의 腹甲이 조각되어 있고, 종아리에는 甲帶를 착용한 것이 독특하다. 슬처럼 생긴 갑대의 형태는 1656년에 무염이 제작하고 단웅이 보조화원으로 참여한 송광사 나한전 미륵보살상에서도 나타나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도 4). 그러나 복갑과 갑대가 동시에 조각된 것은 조선후기 보살상에서 드문 것으로 조각승 惠熙가 1655년에 제작한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도 5).¹⁶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아미타불이 서방극락세계에서 설법하는 장면과 九品往生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도 6).¹⁷ 아미타불과 팔대보살, 아난과 가섭의 두 제자, 사천왕 등 15구의 권속들이 3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아미타불은 환조에 가깝게



도 4 무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56년, 완주 송광사(사진 재단법인불교문화재연구소)

¹⁶ 조각승 혜희에 관해서는 정은우, 「17세기 조각가 혜희(惠熙)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사회평론, 2006), pp. 152-175 참고.

¹⁷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나타난 구품의 상징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이용윤, 「聞慶 大承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에 관한 研究」,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p. 10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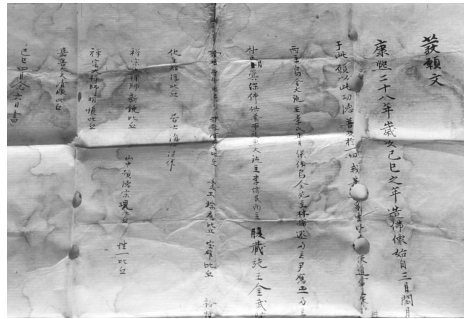
도 5 혜희, 범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보은 범주사(사진 재단법인불교문화재단연구소)



도 6 단응,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684년, 265×218cm, 예천 용문사(용문사성보유물관, 『龍門寺』, p. 113)

고부조로 조각되었고, 대의 자락은 연화대좌 사이로 길게 늘어져 있다. 평면적인 얼굴에 매부리코이며 배의 옷주름이 W형으로 드리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존의 좌우에는 팔대보살 중 문수와 보현이 있고, 바깥쪽에는 관음과 대세지가 있다. 관음과 대세지는 보관의 化佛과 손에 든 지물이 강조되었다. 상단에는 금강장과 제장애, 미륵과 지장보살이 대칭을 이루며, 두 상의 바깥에는 가섭과 아난존자가 있다. 하단에 조각된 사천왕은 각각 비파, 검, 용과 여의주, 당과 보탑을 들고 있는데 조선 전기에 유입된 明代의 티베트 불교계 사천왕의 도상과 관련이 있다.¹⁸ 사천왕의 복식과 장신구 등을 상세히 표현하였고, 사천왕 가운데

2구는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도 7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발원문, 1689년, 종이, 62×80cm, 제천 정방사(사진 미술사연구회)

3)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단응이 제작한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불상의 개금불사 때 발원문이 발견된 것을 불상의 사진과 함께 사찰에서 보관하여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도 7).

¹⁸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도상이 명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의견은 이대암, 『사천왕상』(한길아트, 2005), pp. 219-229; 이승희, 「고려말 조선초 사천왕도상 연구」, 『미술사연구』22(2008), pp. 139-142.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발원문〉

“康熙28年(1689) 3월 閏月부터 불상을 만들어 4월에 끝내었다. ……左補處 大施主는 貴今, 右補處 大施主는 今伊이며 불상의 시주는 朴梧龍 부부이다. 證明은 行修, 持殿은 靈贊, 畫工은 端應, 宝雄, 裕特, 琢璘 비구이다. ……化主는 智淳 비구, 居士는 海性 보체이다. 禪宗 大禪師 信鏡 비구, 山中碩德 宗現 비구, 性一 비구, 禪宗大禪師 明順 비구, 嘉善大夫 清眼 비구, 己巳年 4월 6일에 쓰다.”¹⁹



도 8 단응,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89년, 제천 정방사(사진 미술사연구회)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康熙 28年인 1689년(숙종 15)에 아미타불의 협시로 제작되었다. 불상의 제작에는 端應, 宝雄, 裕特, 琢璘 등 총 4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다. 조각승 보응은 같은 해 경상북도 상주 갑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중수할 때 탁밀과 함께 참여한 승려이다.²⁰ 탁밀은 용문사 불사에서 次畫員으로 등장하였고, 1687년 首畫員으로 영월 보덕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였다.²¹ 이때 유득은 탁밀의 보조화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모두 같은 계보로 파악된다. 탁린은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발원문에 처음 등장하며 이후 단응과 꾸준히 활동하였다. 발원문에는 용문사 불사를 이끌었던 신경대사와 종현이 다시 등장한다. 따라서 단응을 중심으로 하는 조각승 집단을 실제적으로 이끈 인물은 신경대사

¹⁹ “康熙二十八年歲次己巳之年造佛像始自三月閏月終之四月畢……左補處大施主貴今保休 右補處大施主今伊保休 佛像施主朴梧龍兩主 證明行修比丘 持殿靈贊比丘 畫工 端應比丘 宝雄比丘 裕特比丘 琢璘……化主 智淳比丘 居士 海性保休 禪宗大禪師信鏡比丘 山中碩德宗現比丘 性一比丘 禪宗大禪師明順比丘 嘉善大夫清眼比丘 己巳四月念六日書.” 『한국의 사찰문화재』충청북도 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 p. 67.

²⁰ “康熙二十八年八月日 慶尙道尙州牧內南面淵岳山甲長庵過去鑄像重修發願文鄭永鎬……禪宗大禪師 昭影堂神鏡比丘 持殿 宗現比丘 畫員 卓密比丘 普雄比丘 震雷比丘.” 『尙州地區古蹟調查報告書』(단국대학교출판부, 1969), pp. 210-211.

²¹ “江原道寧越郡北面太白山報德寺 佛像新造成發願文……康熙二十六年……緣化秩 證師○山大德昭影堂大師 神鏡比丘 持殿 宗現比丘 畫員 卓密 學崙 坦性 楚崙 世雄 處應 裕特…….” 『한국의 사찰문화재』강원도(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2), p. 358.

와 종현 등의 高僧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방사 보살상은 보관의 化佛을 통해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도 8). 보살상은 허리가 길고, 얼굴이 작은 편으로 매부리코가 특징이다. 배에서 W형으로 늘어지는 옷주름과 다리 앞에서 좌우로 둥글게 펼쳐지는 대의자락은 용문사 불상과 비교된다. 통형의 높은 보관과 U자형의 관대장식도 유사한데, 보관 중앙에 化佛이 크게 조각되었다. 용문사 불상에 비해 섬세함이 떨어지며 복갑과 갑대 장식도 생략되는 등 전체적으로 단순화되었다.

4) 안동 봉황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

경상북도 안동 봉황사 대웅전의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대좌의 墨書を 통해 제작연대와 조각승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봉황사 대웅전에 봉안된 佛牌는 불상을 조성할 때 함께 제작한 것으로 단웅의 이름이 등장한다. 대좌와 불패의 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황사 대좌 묵서〉

“康熙31年(1692)에 초여름 黃山寺 법당에 불상을 새로 조성하였는데 湖南全羅道 全州 威鳳寺 畫員에 의한 것이다. 證明은 昭影堂鏡이 맡았고, 大化主는 또한 ○이다. 불상의 제작을 주관한 이는 應이다. ……片長은 崙, 大○○는 尙念, 惠倫, 坦玉, 琢璘이다. 持殿은 宗順이며 別座는 性摠, 供養主는 克生, 化主는 坦朝가 맡았다. 불상의 좌대는 甲寅年에 태어난 琢璘이 1692년 봄에 黃山寺에서 제작하였다.”²²

〈봉황사 불패 묵서〉

“壬申仲月日 康熙30年(1691) 慶尙左道 安東 黃山寺 大雄殿, ……證明은 眞應이며 畫員은 端應, 德輪, 尙念, 惠倫, 坦玉, 琢璘이다. 또한 甲戌年(1694)에 上中端을 세웠는데 절의 좌우편의 좌대는 琢璘이 주관하였고 목수는 德卞이다. 또 甲戌年에 ○○을 端應과 琢璘이 하였는데, 위패를 주도하여 만든 것은 琢璘이다.”²³

²² “康熙三十一年壬申 孟夏黃山寺法堂 佛像新造成也 湖南全羅道全州 威鳳寺畫員 證明昭影堂鏡大化主又○ 大畫員主應 籌室眞應○ 片長 崙 大○○ 尙念 惠倫 坦玉 琢璘 持殿 宗順 別座 性摠 供養主 克生 化主 坦朝 臺座 造作主甲寅生琢璘壬申仲春黃山寺.”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 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 256.

²³ “壬申仲月日 康熙三十年慶尙左道安東地黃山寺大雄殿伏儒○三尊又三堅伯 證明眞應 畫員 端應 德輪 尙念 惠倫 坦玉 琢璘 又甲戌年仲月日上中端卓寺左右片座臺主琢璘木手德卞 又甲戌年○五月日○像○全畫○端應琢璘○○ 世甲 造位主琢璘也.”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 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 257.

이상의 기록을 통해 불상은 康熙31年인 1692년(숙종 18)에 완성하여 黃山寺 법당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黃山寺는 불상이 제작되었던 당시의 절 이름으로 훗날 鳳凰寺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²⁴ 불상의 제작을 이끈 조각승은 ‘應’이며 편장은 ‘崙’으로 法名의 뒷글자만 기록되었다. 불상과 함께 제작된 불패에는 작업에 참여한 畫員들이 언급되었는데, 이를 참고로 하면 端應, 德輪, 尙念, 惠倫, 坦玉, 琢璘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탁린이 대좌와 불패의 제작을 맡았다고 기록되어 불상과 대좌를 만드는 조각승이 나뉘어져 분업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甲寅生’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탁린이 1674년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1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목공예 실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대좌 묵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全州 威鳳寺 畫員’이라는 기록이다. 이는 단웅의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전라북도에서 불상 제작기술을 익힌 후 경상북도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증명으로 등장하는 ‘昭影堂鏡’은 ‘昭影堂鏡神鏡’을 가리키며, 持殿은 의식을 집전하는 승려로 宗順이 맡았다.²⁶ 別座로 기록된 性攄은 용문사 불사에 참여하였던 승려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²⁷

봉황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은 석가불, 아미타불, 약사불로 구성된 삼세불 형식이다



도 9 단웅, 봉황사 석가여래삼불좌상, 1692년, 안동 봉황사(사진 재단법인불교문화재연구소)

²⁴ 鳳凰寺는 임진왜란시에 전소되어 새로 주석한 스님에 의해 黃山寺로 불리다가 1680년 홍수 뒤에 절 근처의 시냇가에서 발견된 『鵝岐山鳳凰寺事蹟碑』를 통해 寺名을 확인하고 鳳凰寺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찰 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16(2001), p. 213.

²⁵ 1614년과 1674년이 甲寅年에 해당하는데, 17세기 후반부터 활동하였으므로 1674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²⁶ 持殿 宗順은 1741년 『直指寺事蹟碑』에 ‘前和尚 宗順’으로 기록되어 경상북도 출신의 승려로 추정된다.

²⁷ 각주 11 참조.

(도 9).²⁸ 본존 석가여래는 大衣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편단우견 형식으로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약사와 아미타여래는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고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된 편단우견 형식으로 배에는 좌우대칭으로 늘어지는 옷주름이 나타난다. 불상의 허리는 길쭉한 편으로 어깨와 다리가 넓어 안정감이 있다. 다리 위를 덮고 좌우로 펼쳐지는 대의자락과 매부리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신체와 얼굴에 양감이 줄어 경직된 느낌을 준다.

5) 하동 쌍계사 천왕문 사천왕상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의 내부에서는 腹藏文 1책과 施主·緣化秩 1매, 다라니 등의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施主·緣化秩을 적은 종이는 1705년으로 기록된 복장문과 함께 넣어진 것으로 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계사 사천왕상 施主·緣化疾〉

“(시주질 생략) ……緣化秩 證明은 昭影堂大比丘, 畫員은 端應, 德倫, 尙念, 慧崙, 坦玉, 琢璘 비구이다. 持殿은 宗順 비구이며, 供養主는 秀一, 克禪, 惠日, 琢玄, 三益, 引勸, 坦俊, 性照 보체, 幸文 비구이다. 黃金化主는 信行이고, ○像化主는 海暹, 坦照 비구, 別座는 法惣 비구이다.”²⁹

쌍계사 사천왕상은 1705년(숙종 31)에 端應, 德倫, 尙念, 慧崙, 坦玉, 琢璘이 제작하였다. 이들은 1692년 봉황사 삼세여래좌상을 만든 조각승들로 동일한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證明은 昭影堂神鏡이 맡고 있어 1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단웅과 함께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봉황사 삼세여래좌상 대좌목서에서 持殿으로 등장하였던 宗順이 다시 등장하는데, 앞 시기에 신경과 짝을 이뤄 활동한 宗現과 비교된다. 따라서 조각승을 비롯하여 증명, 지전을 맡은 승려는 함께 무리지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며, 조각승들

²⁸ 조선시대 삼세불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東岳美術史學』(東岳美術史學會, 2007), pp. 91-118; 심주완, 「조선시대 三世佛像 연구」, 『美術史學研究』(韓國美術史學會, 2008. 9), pp. 5-40 참고.

²⁹ “……緣化秩 證明 昭影堂大比丘 畫員 端應 比丘 德倫 比丘 尙念 比丘 慧崙 比丘 坦玉 比丘 琢璘 比丘 持殿宗順 比丘 供養主秀一 比丘 克禪 比丘 惠日 比丘 琢玄 比丘 三益 比丘 引勸 比丘 坦俊 比丘 性照 保体 幸文 比丘 黃金化主 信行 此 ○像化主海暹, 比丘 坦照 比丘, 別座 法惣 比丘.”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I 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 243.



도 10 단응, 쌍계사 사천왕상, 1705년, 하동 쌍계사(사진 필자)

은 전문화된 장인 집단으로 쌍계사에 초빙되어 사천왕상의 제작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네 구의 사천왕상은 학과 봉황 등으로 장식된 화염보관을 쓰고 갑옷을 입고 있다(도 10). 사천왕상은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고 상체가 긴 편으로 단응 불상의 신체비례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고 어깨는 당당하며 다부진 모습이다. 얼굴은 평면적이며 이목구비는 과장되지 않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선 후기 사천왕상에서 흔히 보이는 주먹코가 아닌 콧등이 삼각형 모양으로 솟아올라 있어 단응의 불상 양식이 사천왕상에도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2. 端應의 계보와 활동

조각승 단응과 관련된 발원문과 기록을 통하여 그와 함께 활동한 조각승과 이후 영향을 미친 조각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端應이 불상을 제작한 기간은 1656년에서 1705년으로 약 50년간 조각승으로 활동하였다. 단응은 1656년에 무염이 주도한 송광사 나한전의 불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 무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³⁰ 단응이 보조화원으로 참여한 것은 송광사 불사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정 기간의 수련 후에 독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용문사 불상을 제작

³⁰ 無染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1633년 고창 선운사 삼세불상, 1635년 영광 불갑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 1651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4년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문명대, 앞의 논문(2006), pp. 28-39; 무염은 불상을 제작할 때 주로 海心, 道祐 등과 함께 활동하였고, 이들은 17세기 중반부터 수화원이 되어 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송광사 발원문에서는 해심이나 도우가 등장하지 않아 단응은 해심과 도우와는 다른 갈래로 파악된다. 해심과 도우에 관해서는 문명대, 앞의 논문(2006), pp. 39-43; 송은석, 앞의 논문(2007. 2), pp. 232-241.

표 1 조각승 단응과 그 계보의 문헌기록

	연도	지역	사찰	조성 내용	화원	비고
1	1656년	전라북도 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권속상	無染, 玄准, 戒訓, 思印, 性淳, 太信, 法器, 熙淳, 覺善, 敬熙, 端應...	發願文
2	1684년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조아미타 여래삼존좌상 및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端應, 卓密, 學倫, 法清, 坦性, 義禪, 體元, 學坦, 太敏	腹莊記, 書記
3	1687년	강원도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 여래삼존좌상	卓密, 學嵩, 坦性, 楚嘗, 世雄, 處應, 裕特	發願文
4	1689년	충청북도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端應, 寶雄, 裕特, 琢璘	發願文
5	1689년	경상북도 상주	갑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중수	卓密, 普雄, 震雷	發願文
6	1692년	경상북도 안동	봉황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불패	端應, 德崙, 尙念, 惠倫, 坦玉, 琢璘	臺座墨書, 佛牌墨書
7	1702년	경상북도 성주	선석사	선석사 괘불의 供養主로 참여	供養主 卓密	書記
8	1705년	경상남도 하동	쌍계사 천왕문	사천왕상	端應, 德倫, 尙念, 慧倫, 坦玉, 琢璘	發願文
9	1714년	경상북도 문경	김릉사	冥府殿, 東殿 건립	曇裕, 卓密	事跡記
10	1716년	강원도 양구	심곡사	목조아미타 여래삼존좌상	琢璘, 應玉, 尙玄, 三機, 上欽, 自悅	發願文
11	1730년	충청북도 제천	신륵사 극락전	목조아미타 여래삼존좌상	左片首 惠珠, 首片將 正幸, 右片將 善圓, 三海 玉悅...	發願文, 충주 창룡사 협시 봉안
12	1736년	충청북도 단양	조계사 극락전	목조아미타 여래삼존좌상	正幸, 道寬, 最建, 海涉	發願文, 제천 백련사, 강천사 봉안

하기까지 약 3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보조화원 또는 수화원으로 불상 제작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단응의 기년명 불상은 1680년대에 가장 많이 남아있어 이 시기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단응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卓密은 용문사 불사에 次畫員으로 참여하였다. 탁밀은 1687년 수화원으로서 보덕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였는데, 卓密, 學嵩, 坦性 등 7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다.³¹ 이들 가운데 學嵩, 坦性은 용문사 불사에 참여하였던 조

³¹ 각주 21 참조. 발원문에서 卓密, 學嵩, 坦性, 裕特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는 명확히 읽을 수 없었는데 楚嘗, 世雄, 處應으로 읽은 경우가 있어 이를 참고로 하였다. 심주완, 앞의 논문, p. 153.

각승이며, 裕特은 1689년 단응과 함께 정방사 관음보살상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단응과 탁밀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보조화원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어 모두 동일한 조각승 집단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탁밀은 1689년 상주 갑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중수하고, 1702년 성주 선석사 괘불의 供養主로 참여하였다.³² 1714년에는 문경 김룡사 冥府殿과 東殿 건립하여 18세기 전반까지 다양한 활동한 펼쳤음을 알 수 있다.³³ 그는 1680년대에 수 조각승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단응과 연배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후배 관계로 추정된다.

단응과 꾸준한 활동을 펼쳤던 조각승으로 琢璘이 있다. 탁린은 단응과 함께 1689년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92년 석가여래삼불좌상, 1705년에 쌍계사 사천왕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1716년에 강원도 양구 심곡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며 단응의 계보를 이어 간다.³⁴ 안동 봉황사의 대좌묵서를 통해 ‘甲寅生’인 탁린이 1674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심곡사 불상을 제작할 당시의 탁린의 나이는 43세로 40대에 수화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각승 正幸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활동 시기가 단응과 겹치지는 않으나, 조각 수법에서 단응의 영향이 나타난다. 정행은 1730년에 제천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제작하였다.³⁵ 그런데 현재 충주 창룡사에 소장된 보살상에서 신륵사에서 조성하

³² 각주 20 참조.

³³ 『義城縣騰雲山高雲寺事蹟碑文』에 의하면 1714년에 曇裕와 卓密이 冥府殿과 東殿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冥府殿三尊十冥王攸宅而歲在甲午曇裕卓密之所建旁有僧寮其號東殿…….” 姜裕文, 『慶北五本山古今記要』(慶北佛教協會, 1937), p. 81.

³⁴ 아미타삼존불 가운데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복장에서 발원문이 나왔다. 관음보살에서 나온 발원문에서는 조각승의 역할에 따라 書工, 邊首, 治工으로 나뉘어 기록되었다. “觀世音菩薩 發願文 有明朝鮮國 江原道楊口縣上東金剛山南兜率山深谷寺 敬造圓通教主觀世音菩薩尊像安于本寺發願文……康熙五十五年上六月丙上申月日 書……緣化秩 證明 慶嚴 ○○秀琮 萬徽 書工 應玉 尙玄 邊首 琢璘 三機 上欽 自悅 治工 就託 供養主 覺能 法雲 法澄 化主 秩 山中碩德 文益 釋清 性均 妙訓 玉坦 比丘 一玉 別座 就淡 印和 月明 智性”, “大勢至菩薩 發願文……緣化秩 證明比丘 慶嚴 持殿比丘 秀琮 比丘 萬徽 首書員 比丘 琢璘 比丘 應玉 比丘 尙玄 比丘 三機 比丘 上欽 比丘 自悅 治邊首 就託 供養主 比丘 覺能 比丘 法雲 比丘 法澄 化主比丘 釋清 化主比丘 性均 化主比丘 妙訓 別座比丘 就淡.” 임영애, 『조선후기 강원도 양구 深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像』, 『講座美術史』20(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3), pp. 99-102.

³⁵ “腹藏願文 淸風府遠西月岳山神勒寺者新羅肇基衰廢久矣時值成運新構二三僧寮及法堂而無佛像屆過咸歎矣山之僧禪悅兩人志欲造像己酉秋(秋)聚千人之尺財合萬家之斗粟庚戌春請邀良工敬三尊尊鬼乎海上之高峰皎皎乎星中之圓月豈不義哉以之功德普令一切助緣大小施主及緣化主良工各各比丘業現生(之)內消災增壽當來之世龍華會上先蒙佛記乃至盡於未來海劫饒益衆生無有間斷是所願也而有後人之可攷焉 雍正八年庚戌五月十九日入封緣化秩 證師印信 持香(殿)智淳 誦經智鑑 供養主道澄 性崑 幸察 左片首 惠珠 首片將 正幸 右片將 善圓 三海 玉悅 天印 海均 洞演…….” 김춘실, 『충청북도 제천·단양 지역의 朝鮮 後期 木造佛像』, 『미술사연구』23호(미술사연구회, 2009), p. 273.

였다는 발원문이 발견되어 신륵사의 협시보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⁶ 신륵사 불상을 만든 조각승은 正幸, 惠珠, 善圓 등으로 앞서 살펴본 단응 계열 조각승과 일치하는 이름이 없다. 그러나 발원문에 持殿으로 등장하는 智淳은 1692년 제천 정방사 보살상의 제작에 化主로 참여한 智淳과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정방사 불상이 모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이후 정행은 1736년 단양 조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는 등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³⁸

3. 端應 계열 불상의 특징과 양식의 변천



도 11 색난,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84년, 강진 옥련사(사진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단응은 조선후기 불상의 전형성을 따르면서도 독특한 불상 양식을 성립하였다. 특히 신체비례, 얼굴 표현, 배와 다리의 옷주름, 보살상의 장식성 등에서 다른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들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먼저 조형감각을 보여주는 비례를 살펴보면 얼굴이 작고 허리가 길쭉한 것이 특징으로 머리와 신체의 비가 1:4정도이다.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조각승 色難의 불상과 비교하면 신체비례와 불상 양식에 큰 차이가 있다(도 11). 단응의 불상은 평면적인 얼굴에 매부리코로 근엄한 인상을 띤다. 불상의 오른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이 배를 가로지르는 옷 사이로 들어

³⁶ 창룡사 보살상의 발원문의 내용은 신륵사 극락전 불·보살상의 복장발원문과 거의 같다. 『寺誌』에 기록된 창룡사 보살상의 발원문을 신륵사 보살상의 복장원문과 비교하여 誤讀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雍正八年庚戌五月十九日 入封 淸風府面 月岳山 新勒寺者 新羅肇基 衰廢久矣時值成運 新構二三僧寮及法堂而無佛像屈過成歎矣 山之僧禪悅兩人志欲造像已酉秋聚千人之尺財合萬家之斗粟庚戌春請 邀良工敬三尊像鬼乎 海上之高峰皎皎乎 星中之圓月豈不義哉以之功德普令一切助緣大小施主及緣化主良工各 各比丘業現生之內消災增壽當來之世龍華會上先蒙佛記乃至盡於未來海劫饒益衆生無有間斷是所願也而有後 人之可放焉.” 『寺誌』(충청북도, 1982), p. 106.

³⁷ 김춘실, 앞의 논문, pp. 261-265.

³⁸ 단양 금수산 조계사 극락전에 봉안되었던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좌상은 현재 백련사 대웅전에 보존되어 봉안되어 있고, 강천사에 대세지보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乾隆元年丙辰五月既望日丹陽西面錦繡山曹溪 寺極樂殿三尊佛像新成願文……緣化秩 證師印信 持香智學 誦經信雲 畫員正幸 道寬 最建 海涉 …… 別坐日輝 化主行察.” 김춘실, 앞의 논문, p. 274.



도 12 탁밀, 보덕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87년, 영월 보덕사(사진 재단법인불교문화재연구소)

가는 것은 조선후기 불상의 일반적인 착의법이다. 그러나 배의 옷주름은 W형으로 좌우대칭으로 드리워지고, 하반신을 덮은 대의는 좌우로 균일하게 펼쳐진다. 이와 같은 배와 다리의 옷주름 표현은 단웅 계열 불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보살상은 머리에 크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보관의 좌우로 펼쳐진 관대 장식은 U자형으로 상승하듯이 날리고 있어 독특하며, 손에 든 지물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단웅의 불상 양식은 무염이 1656년에 제작한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불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도 4). 매부리코, 이중의 턱 표현, 다리를 덮고 균일하게 펼쳐지는 둥근 대의자락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무염의 불상은 눈두덩과 볼, 신체의 양감이 두드러지는 것에 반해 단웅의 불상은 얼굴이 작고 길쭉한 신체에 양감이 줄어들어 서로 다른 조형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웅 불상의 특징은 그를 계승한 탁밀, 탁린, 정행의 불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탁밀이 제작한 보덕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용문사 삼존불상을 모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도 12). 신체비례와 이목구비, 옷주름 표현이 유사한데,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의 끝부분을 각지게 처리하였다. 보살상의 U자형 관대장식은 상승하듯이 화려하게 표현되었고 관음보살은 복갑과 갑대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문의 복갑은 배 부분이 아닌 가슴 부분에 착용하였고, 요의도 가슴까지 치켜 올려져 용도에 대한 이해보다는 장식성이 강하다.

탁린이 1716년에 제작한 심곡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고 허리가 긴 편이다(도 13). 이목구비는 오밀조밀하게 표현되었고, 코는 매부리코이며 큰 귀가 앞을 향하였다. 배에서 좌우대칭을 이루며 늘어지는 옷주름에서 단웅의 영향이 나타나지



도 13 탁린, 심곡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716년, 양구 심곡사(사진 필자)



도 14 정행, 신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관음보살좌상, 1730년, 제천 신록사(사진 필자)



도 15 정행, 백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36년, 제천 백련사(사진 필자)

만, 다리를 덮고 좌우로 펼쳐진 옷주름은 ‘시’자형으로 도식화되었다.

정행이 제작한 신록사와 백련사의 불상은 단웅 불상에 비해 얼굴은 가름해지고 매부리코의 콧대는 날렵하게 표현되었다(도 14, 15). 배에서 좌우대칭으로 늘어진 W형의 옷주름은 윗부분이 두껍게 변형되었고, 다리를 덮고 좌우로 둥글게 펼쳐진 옷주름은 좌우대칭으로 변하였다. 이처럼 단웅의 후배와 제자들이 제작한 불상은 단웅의 불상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점점 도식화 되었다. 18세기에 제작된 단웅 계열 불상들은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불상들보다 허리는 더욱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무릎 폭은 좁아졌다. 세부 표현은 점차 생략되며 형식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불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단웅 계열에 속하는 무기년명 불상을 추정할 수



도 16 의성 고운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7세기 후반, 의성 고운사 (사진 필자)



도 17 각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불감, 17세기 후반, 봉화 각화사(사진 재단법인불교문화재연구소)



도 18 선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7세기 후반, 성주 선석사(사진 재단법인불교문화재연구소)

있다. 의성 고운사 명부전 지장보살상(도 16), 봉화 각화사 아미타불감(도 17), 성주 선석사 삼존상(도 18), 문경 대승사 극락전의 보살상, 김룡사 명부전 지장·시왕상 등 경상북도에 남아있는 다수의 불상이 단웅 계열로 분류된다. 단웅의 불상 양식은 음성 가섭사 불상(도 19), 제천 원각사 보살상, 단양 청련암 보살상 등 충청북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 삼척 삼화사의 삼존불상(도 20), 영월 보덕사 사성전 석가여래삼존상, 원주 영원사 아미타여래좌상 등 강원도 지역의 불상들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이들 불상의 제작 시기를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고, 경상북도 북부와 충청북도 동부지역, 그리고 강원도 남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19 가섭사 목조여래좌상,
18세기 전반, 음성 가섭사
(사진 필자)



도 20 삼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7세기 후반, 동해 삼화사
(사진 필자)

Ⅲ. 端應의 활동배경과 새로운 경향

1. 昭影堂 神鏡과 宗現의 후원

안동 봉황사 대웅전 대좌묵서를 통해 단응은 전라북도 완주 威鳳寺 출신의 승려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후 단응의 활동지역은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북도로 나타난다. 단응이 출신지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昭影堂 神鏡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³⁹ 신경은 幻寂義天(1603~1690)의 上佐로 淸虛休靜-鞭羊彦機-幻寂義天-照影伸敬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계승하였다.⁴⁰ 환적의전은 海印寺에서 입적하여 신경의 근거지도 경상도 지역으로 추정된다.

神鏡과 함께 宗現이 단응과 탁밀이 제작한 불상의 발원문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신경은 불상이 法式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감독하는 證明의 역할을 주로 하였고, 종현은 持殿으로 참여하였다(표 2). 신경은 용문사의 金堂을 세우고 삼존불과 아미타여래설법상의 제작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續龍門事蹟記』에는 그가 명부전의 시왕상도 조성하였으

³⁹ 기록에 신경대사는 昭影堂 혹은 照影堂 神鏡으로 기록되었는데, 昭影堂으로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⁴⁰ 『海東佛祖原流』常 p. 51, 照影伸敬으로 法名의 漢字가 다르게 기록되었으나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경상북도 지역의 법맥에 관해 조언을 해주신 이도영 동학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사를 드린다.

며, 이에 별도로 감실을 마련하여 신경대사의 眞影을 안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용문사 佛事에서 그의 功勞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¹ 신경은 불상의 제작 외에 상주 갑장사 관음보살의 重修에 관여하였으며, 1684년 상주 용흥사 괘불을 조성할 때에는 證明을 맡았다.⁴² 이때에도 宗現이 持殿으로 등장하고 있어 두 승려가 경상북도 지역의 佛事に 꾸준히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宗現은 1680년대까지 발원문에 등장하며 이후 持殿의 역할은 宗順이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경은 단응이 1705년에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을 제작할 때 證師로 참여하여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 단응과 함께 활동하였다. 의성 고운사에는 1706년에 세워진 「禪宗昭影堂大師碑」가 있어 신경은 이 때 입적한 것으로 보인다. 상주 남장사에는 신경의 부도가 남아있어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로 파악되는데, 이처럼 비가 세워지고 부도가 모셔질 정도로 위세가 높던 고승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경과 종현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상주에서 안동, 영주 지역 등이 주요 거점지였으며 그 외 강원도 영월, 충청북도 제천, 경상남도 하동 까지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 지역은 단응과 탁밀 뿐만 아니라 탁린 그리고 후대 조각승인 정행의 불상 조성 지역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신경과 종현은 단응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의 실제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각승과 후원 승려의 관계는 17세기 전반 浮休門徒의 승려인 碧巖覺性(1575~1660)이 여러 조각승을 후원한 연구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⁴³ 단응 계보의 조각승과 신경, 종현의 관계는 17세기 후반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 집단이 지역적인 성격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⁴¹ 명부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발원문이 남아있지 않으나 「續龍門事蹟記」의 내용을 통해 金堂의 불상과 함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十王之造像 金堂之板佛 實藉神鏡大師之力 居多寺僧 歎基功德 別設一龕于祝壽之西 將欲安大師之影子也…….” 『용문사』(용문사성보유물관, 2006), p. 23.

⁴² “康熙二十三年甲子五月十三日 ……證明 照影堂神鏡 持殿宗現比丘…….” 聖寶文化財研究員, 『韓國의 佛畫 直指 寺 本末寺(下)』, p. 259.

⁴³ 이강근, 앞의 논문, pp. 15-20; 최선일, 앞의 논문(2006, 6), pp. 17-20.

표 2 신경과 중현의 관련 기록

연도	내용	원문	출전
1683년	시왕상과 금당의 판불을 만드는 일은 실로 신경대사의 힘에 의지한 것으로, 그의 공덕에 탄복하여 축수전 서쪽에 별도로 감실을 마련하여 앞으로 대사의 진영을 안치하려 한다.	十王之造像 金堂之版佛 實藉神鏡大師之力 居多寺僧 歎基功德 別設一龕于祝壽之西 將欲安大師之影子也	『續龍門事蹟記』
1684년	증명 소영당신경 지전 중현비구	證明 照影堂神鏡 持殿宗現比丘	상주 용흥사 괘불 화기
1684년	소영당대사가 이 절에 머물 적에 금당이 없으니 사찰 내의 승도가 일어 날만하다는 대사의 말을 받들어 산의 승려 처영이 전각을 맡아 완성 시키고, 대사의 弟인 흥택, 정심, 황막급, 이신원 등이 크게 기원하며 불상 삼존과 미타회판탱을 만드는 일을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昭影堂大師寓過此寺而無金堂而可興寺內僧徒承其大師之流言山之僧處英其名者主化任成其殿大師之弟洪澤淨心黃莫金李信元等共發大願幹其造佛像三尊兼彌陀會版幀功成已畢	『龍門寺金堂始創腹莊記』
1687년	증사 소영당신경 지전 중현	證師 ○山大德昭影堂大師神鏡 比丘 持殿 宗現 比丘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발원문
1689년	선종대선사신경비구 산중석덕중현비구	禪宗大禪師信鏡比丘 山中碩德宗現比丘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발원문
1689년	연화 선종대선사 소영당신경 비구 지전 중현비구	綠化 禪宗大禪師 昭影堂神鏡 比丘 持殿 宗現比丘	상주 감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중수발원문
1692년	증명 소영신경 지전 중순	證明昭影堂鏡 持殿 宗順	안동 봉황사 삼세불좌상 대좌목서
1705년	증명 소영당대비구 지전 중순	訂明昭影堂大比丘 持殿宗順 比丘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 발원문
1706년	선종소영당대사비	〈正面〉禪宗昭影堂大師碑 〈背面〉和尚通政道心 首僧 卓梅 書記 釋甘 受法弟一念 上佐 敬海 化主 卓隆 丙戌三月日 洪良 法戒	경상북도 의성 고운사 비문
1709년	산하불출 소영신경수좌	至心歸命禮 虛應堂普雨大師 四溟堂唯政大師 浮休善修大師 嗣祖講教 鞭羊彥機尊宿…… 山下不出 昭影神鏡首座……	『天地冥陽水陸齊儀梵音刪補集』
1711년	소영대사는 도가 있는 사람이다. 어릴 적에 출가하였으며 세상에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세상과 더불어 이익과 명예를 다투지 않았다.	昭影大師者 有道之人也 自綺年抱 不世之才 而不以與世爭利名 遯晦岩龕 概滌塵慮 磨礪道業 業一世 當倍筏於衆人 而非可跛而及者……	『風溪集』 ⁴⁴
	소영당대사신경	昭影堂大師神鏡	경상북도 상주 남장사 승탑 금석문

⁴⁴ 『天地冥陽水陸齊儀梵音刪補集』과 『風溪集』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최선일 선생님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 를 드린다.

2.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유행

단웅의 불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으로 이를 조성하는 데에는 神鏡과 宗現의 실제적인 주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宗現이 목각아미



도 21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675년, 347×279cm, 문경 대승사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9, 직지사본말사下, p.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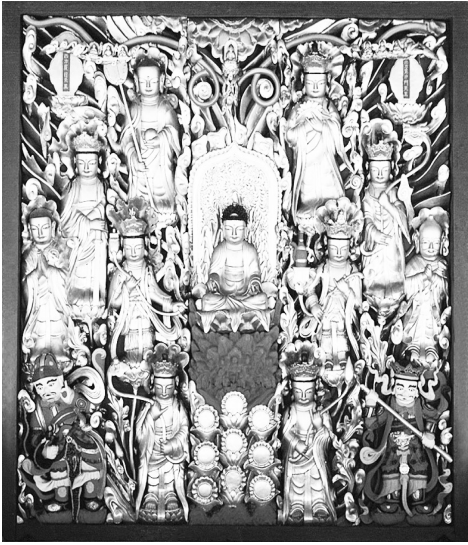
타여래설법상의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있다. 대승사 설법상은 최근 1675년에 조성된 것이 밝혀지면서 용문사 설법상의 선행된 예임이 확인되었다.⁴⁵ 대승사 설법상은 宗現이 證明을 맡고 있는데, 畫記에는 조각승이 나타나지 않지만 구성이나 조각 수법에서 용문사 설법상과 유사하다.

대승사 설법상에는 尊名이 적혀 있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구성을 이해하는데 기준이 된다. 높은 연화대좌에 앉아 있는 아미타불과 주위를 둘러싼 팔대보살은 설법 장면의 중심이다(도 21).⁴⁶ 팔대보살 주변에는 십대제자 가운데 여섯 분의 제자가 있고, 범천·제석천, 일광·월광천자, 발난타·난타용왕,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⁴⁷ 화면의 상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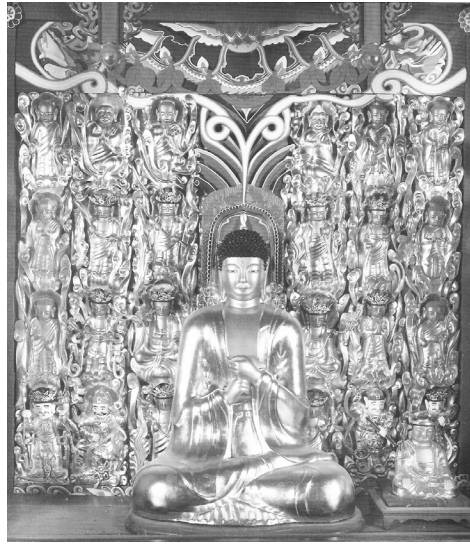
⁴⁵ “……康熙十四年月日 證明比丘 宗現 佛母比丘 禪定…….”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 20.

⁴⁶ 원래 팔대보살은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금강장보살, 제장애보살, 허공장보살이지만 고려 후기 아미타팔대보살도에서는 허공장보살이 아미타여래의 협시인 대세지보살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아미타신앙이 성행하면서 생겨난 변화로 이해된다. 이용윤, 앞의 논문, pp. 114-115.

⁴⁷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보이는 사천왕상은 조선전기 판본에서 보이는 티베트 불교계 사천왕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名牌에는 향우측에 있는 비파를 든 사천왕을 ‘동방지국천왕’이 아닌 ‘북방다문천왕’으로 표기하여 혼란이 있다. 티베트불교계 사천왕의 도상에서는 향좌측의 탑을 든 사천왕이 북방다문천이 되어야 하기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표기된 존명은 도상과 불일치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천왕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배치되었는지가 학자들의 연구과제가 되었다. 노명신, 『朝鮮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美術史學研究』202(韓國美術史學會, 1994), pp. 97-126; 동지, 『松廣寺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講座美術史』13(韓國佛教美術史學會, 1999), pp. 92-102; 장충식, 『韓國佛畫 四天王의 配置形式』, 『美術史學研究』211(韓國美術史學會, 1996), pp. 29-55; 이기선, 『朝鮮後期 佛畫의 圖像 배치형식에 관한 試論』, 『韓國의 佛畫』11(聖寶文化財研究院, 1998), pp. 217-234; 임영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亞細亞文化史, 2006), pp. 127-150; 박은경, 『조선 전반기 佛畫의 對外交渉』, 『朝鮮 後半期 美術의 對外交渉』(예경, 2007), pp. 118-129; 이승희, 앞의 논문, pp. 117-150 참고.



도 22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7세기 후반, 177×176cm, 서울 경국사(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34, 조계사본말사,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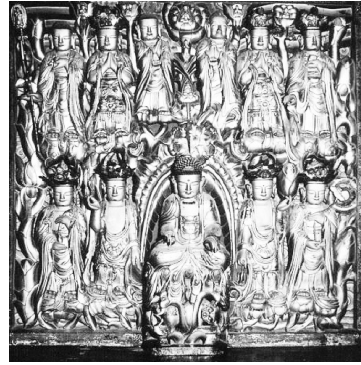
도 23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8세기 전반, 250×236cm, 상주 남장사(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9, 직지사본말사下, p. 237)

는 천상세계가 표현되어 있고, 하단에는 구품왕생의 단계를 적어 놓은 연꽃이 조각되어 있다. 대승사 설법상의 형식은 이후 예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상주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으로 지속되었다(도 22, 23). 그러나 대승사 설법상에서 보이는 복잡한 구성은 용문사와 경국사 설법상에서 간략하게 상징화되었고, 입체적이고 섬세한 조각수법은 평면적이고 장식적으로 변하였다. 남장사 보광전 설법상에서는 극락구품이 생략되었고 조각 수법이 단순화되었다.

단웅 계열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상단에는 모두 天蓋와 瑞氣가 표현되어 있다. 尊像의 사이에는 구름이 빼곡히 조각되었는데, 머리 주변에 조각 되어있는 구름은 後光처럼 보이는 효과를 준다. 본존은 화려한 舟形의 광배가 둘러져 있는 대좌 위에 앉아 있다. 상반신이 길고 평면적인 얼굴에 매부리코이며, 배에서 대칭으로 늘어지는 W형의 옷주름과 연화대좌 사이로 흘러내리는 구불구불한 옷주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팔대보살은 지물에서 도상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관음보살의 정병과 대세지보살의 경책 등 지물이 강조되었고, 관음보살의 보관 위로 化佛이 크게 조각되어 장식적인 효과를 준다. 남장사 보광전 설법상은 본존의 양 옆으로 坐像의 보살상을 조각하여 대승사 설법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보살상의 지물과 화불 등이 생략되고 단순화되어 후대에 대승



도 24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694년, 145×185cm, 상주 남장사(사진 남장사 제공)



도 25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782년, 181×183cm, 남원 실상사(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13, 금산사본말사, p. 62)

사 설법상을 모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천왕의 일부가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도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실상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서 볼 수 없는 단응 계열 설법상의 특징이다(도 24, 2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단응과 그의 영향을 받은 조각승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를 제작하기를 발원하였던 신경과 종현의 역할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화를 불상으로 변환할 수 있었던 단응의 역량으로 인해 제작될 수 있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조각승 端應과 불상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단응의 불상은 길쭉한 신체 비례와 개성 있는 상호표현, 배와 다리의 형식화된 옷주름, 그리고 보살상의 장식성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불상 양식은 조각승 卓密, 琢璘, 그리고 正幸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인 충청북도, 강원도에서 활동하였는데 이 지역에는 단응 계열에 속하는 무기년명 불상이 많이 남아있어 그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봉황사 대좌묵서를 통해 단응이 전주 위봉사 출신임을 밝힐 수 있었다. 전라도 출신인 그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경과 종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과 종현은 각각 證明과 持殿 등으로 참여하며 조각승의 활동에 실제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였고, 조각승 집단은 지역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단응과 그 계보의 조각승들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다수 제작하여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통해 불상 양식의 변화와 함께 불화를 불상으로 제작한 단응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화기가 복원되어 조각승이 드러나고, 단응 계열로 추정된 상들에서 발원문이 발견된다면 조각승의 존재가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Key Words)_경상북도 지역 목조불상(慶尙北道 地域 木造佛像, the wooden Buddhist Images in Gyeongsangbuk-do),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木刻阿彌陀如來設法像, the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단응(端應, Daneung), 탁밀(卓密, Takmil), 탁린(琢璘, Takrin), 정행(正幸, Jeonghaeng), 소영신경(昭影神鏡, Soyeong Singyeong), 종현(宗現, Jonghyeon)

■ 투고일 2012년 9월 17일 | 심사개시일 2012년 1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월 13일 ■

〈참고〉 단응 계열 조각승 현황

(●:首畫員, 숫자는 전체 彫刻僧 중 기록된 순서를 나타냄)

	완주	예천	영월	제천	상주	안동	하동	양구	제천	제천
	송광사	용문사	보덕사	정방사	갑장사	봉황사	쌍계사	심곡사	신록사	백련사
	전북	경북	강원도	충북	경북	경북	경남	강원도	충북	충북
	1656년	1684년	1687년	1689년	1689년	1692년	1705년	1716년	1730년	1736년
무염	●1/30									
단응	11/30	● 1/9		● 1/4		● 1/6	● 1/6			
탁밀		2/9	● 1/7		●1/3					
학륜		3/9	2/7							
법청		4/9								
탄성		5/9	3/7							
의선		6/9								
채원		7/9								
학탄		8/9								
태민		9/9								
초은			4/7							
세응			5/7							
처응			6/7							
보응				2/4	2/3					
진뇌					3/3					
유희			7/7	3/4						
덕륜						2/6	2/6			
상념						3/6	3/6			
혜륜						4/6	4/6			
탄옥						5/6	5/6			
탁린				4/4		6/6	6/6	● 1/6		
응옥								2/6		
상현								3/6		
삼기								4/6		
상흠								5/6		
자열								6/6		
정행									● 1/8	● 1/4
혜주									2/8	
선원									3/8	
삼해									4/8	
옥열									5/8	
천인									6/8	
해균									7/8	
동연									8/8	
도관										2/4
최건										3/4
해섭										4/4

참고문헌

1. 史料

『海東佛祖原流』

姜裕文, 『慶北五本山古今記要』, 慶北佛教協會, 1937.

韓國學文獻研究所 編著, 『大乘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_____, 『曹溪山松廣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_____, 『華嚴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2. 國文論著

金理那,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70·71, 2004, pp. 69-100.

金春實, 「충청북도 제천·단양 지역의 朝鮮 後期 木造佛像」, 『미술사연구』23, 미술사연구회, 2009, pp. 257-277.

魯明信, 「朝鮮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 『美術史學研究』202, 한국미술사학회, 1994, pp. 97-126.

단국대학교출판부, 『尙州地區古蹟調查報告書』, 1969.

文明大, 「松廣寺 大雄殿 塑造釋迦三世佛像」, 『講座美術史』13, 韓國美術史研究所, 1999, pp. 7-26.

_____, 「高麗·朝鮮朝 佛像彫刻 新例考」, 『講座美術史』15, 韓國美術史研究所, 2000, pp. 251-258.

_____, 「무염파(無染派)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 목아미타삼존불좌상」, 『講座美術史』20,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3, pp. 63-81.

_____, 「조각승 無染, 道祐派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26-I,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6, pp. 23-51.

_____, 「17세기 전반의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 비로자나불좌상」, 『講座美術史』29,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7, pp. 53-80.

박도화, 「松廣寺 五百羅漢殿의 羅漢像」, 『講座美術史』13, 1996, pp. 27-56.

宋殷碩, 「朝鮮後期 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70·71, 국립중앙박물관, 2004, pp. 69-99.

_____,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 『美術史學』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8, pp. 69-103.

심주완, 「龍門寺 木刻幀의 작품과 그 영향」, 『講座美術史』26-I, 韓國美術史研究所, 2006, pp. 139-163.

_____, 「조선시대 三世佛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韓國美術史學會, 2008, pp. 5-40.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佛教義僧軍의 동향 - 全州 松廣寺 開創碑 및 新出 腹藏記를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4,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3, pp. 127-140.

용문사성보유물관, 『龍門寺』, 용문사, 2006.

- 李康根,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華嚴寺 佛殿의 再建과 莊嚴에 관한 研究」, 『佛敎美術』14,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7, pp. 77-155.
- 이대암, 『사천왕』, 한길아트, 2005.
- 이승희, 「高麗末 朝鮮初 四天王圖像 研究」, 『미술사연구』22, 미술사연구회, 2008, pp. 117-150.
- 이용윤, 「聞慶 大承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에 관한 研究」,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문경시·(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pp. 106-123.
- _____,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東岳美術史學』, 東岳美術史學會, 2007, pp. 91-118.
- 李鐘文, 「朝鮮後記 木刻幀 研究」, 『美術史學研究』210, 韓國美術史學會, 1996, pp. 39-96.
- 임영애, 「조선후기 강원도 양구 深谷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講座美術史』20, 韓國佛敎美術史學會, 2003, pp. 165-175.
- _____,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연구』, 亞細亞文化史, 2006, pp. 127-150.
- 鄭恩雨, 「17세기 조각가 혜희(惠熙)와 불상의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2, 사회평론, 2006, pp. 152-175.
- 崔宣一,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美術史學研究』, 2000, pp. 35-62.
- _____,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佛敎彫刻』, 양사재, 2007.
- 충청북도, 『寺誌』, 청주, 1982.
- 洪潤植, 「朝鮮後期 木刻幀畫에 對하여」, 『文化財』, 문화재관리국, 1981, pp. 169-182.

3. 圖錄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강원도, 2002.
-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북도·제주도, 2003.
-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북도, 2006.
-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2008.
-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Ⅱ, 2008.
-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남도Ⅰ, 2009.

국문초록

端應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彫刻僧이다. 그는 1656년에 조각승 無染이 주도한 완주 송광사 나한전 佛事に 보조화원으로 참여하며 불상 제작 기술을 익혔다. 이후 단응은 1684년에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을 제작하였다. 기년명 불상은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89), 안동 봉황사 석가여래삼불좌상(1692), 하동 쌍계사 사천왕상(1705) 등이 남아있다.

단응의 계보는 조각승 卓密, 琢璘, 그리고 正幸 등으로 이어진다. 탁밀이 1687년에 제작한 영월 보덕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에서는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탁린은 1716년에 양구 심곡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제작하여 단응의 계보를 잇고 있다. 정행은 1730년에 제천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736년에 제천 백련사의 아미타여래좌상을 제작하였다.

단응의 불상은 신체비례, 얼굴 표현, 배와 다리의 옷주름, 보살상의 장식성 등에서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단응의 불상은 얼굴이 작고 허리가 긴 편이다. 불상은 평면적인 얼굴에 매부리코이며 배에서 늘어지는 W형의 옷주름과 하반신을 덮은 대의가 좌우로 갈라져 균일하게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살상은 화려한 보관의 장식과 지물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불상 양식은 무염이 1656년에 제작한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불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매부리코, 이중의 턱 표현, 다리를 덮고 균일하게 펼쳐지는 둥근 대의자락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무염의 불상은 눈두덩과 볼, 그리고 신체의 양감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단응의 불상은 얼굴이 작고 길쭉한 신체에 양감이 줄어들어 서로 다른 조형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응은 전라도 출신으로 17세기 후반에 경상북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다. 단응이 출신지역을 벗어나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昭影堂 神鏡大師과 宗現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과 종현의 활동지역은 경상북도 지역이 주요 거점지역이며 그 외 강원도, 충청북도 까지 활동영역을 넓혔다. 이 지역은 단응과 그의 영향을 받은 조각승의 활동 지역과 일치하여 실제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최근 1675년에 조성된 것이 밝혀지면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의 선행된 예임이 확인되었다. 대승사 상은 宗現이 證明을 맡았고, 조각 수법에서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유사하다. 이 밖에도 단응 계열로 추정되는 다른 작품으로는 경곡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남장사 보광전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를 제작하기를 발원하였던 신경과 종현의 역할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화를 불상으로 변환할 수 있었던 단응의 역량으로 인해 제작될 수 있었다.

Abstract

A Study of the Buddhist Statues by a Monk Sculptor Daneung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Lee Minhyung *

Daneung(端應) is a monk sculptor who flourished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in Gyeongsangbuk-do. In 1656, he participated in the project of building the Nahanjeon Hall in Songgwangsa Temple(松廣寺), Wanju, which was led by another monk sculptor Muyeom(無染). The experience and others gave him an opportunity in 1684 to make *th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and *the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of Yongmunsa Temple(龍門寺) in Yecheon. His other works whose dates of production are known include *the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Jeongbangsa Temple(淨芳寺) in Jecheon (1689), *the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of Bonghwangsa Temple(鳳凰寺) in Andong (1692), and *the Four Guardian Kings* of Ssanggyesa Temple(雙溪寺), Hadong (1705). The Buddha images carved by Daneung are marked by a small, comparatively flat face with hooked nose, long waist, W-shaped robe folds at the front part of the upper body, and a robe draped down to cover the entire lower body before parting evenly into two parts. As for bodhisattvas, bejewelled crowns they wear and symbolic objects they hold in their hand are highlighted. These characteristic features were handed down to a younger generation of monk sculptors such as Takmil(卓密), Takrin(琢璘), and Jeonghaeng(正幸).

While Daneung was a monk of Wibongsa Temple(威鳳寺) in Wanju, Jeollabuk-do, he as a sculptor was more active in the area of Gyeongsangbuk-do probably thanks to the support from Soyeong Singyeong(昭影神鏡) and Jonghyeon(宗現). The two supporters were based

* M.A., Hongik University

in Gyeongsangbuk-do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aneung's projects as his witnesses and patrons. *The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1675) enshrined in Daeseungsa Temple(大乘寺), for instance, was witnessed by Jonghyeon. Similar techniques were used to make *the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enshrined in Gyeongguksa(慶國寺) and Namjangsa Temples(南長寺), showing that they were made under the influence of Daneung.